

보도시점 2024. 6. 3.(월) 13:00 배포 2024. 6. 3.(월) 13:00

주일한국문화원과 서울시립미술관이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를 도쿄에서 개최

- 6.5.~8.1. 일본 도쿄에서 4명의 한국 유망 아티스트의 사진, 소리, 조형, 영상
작품 18점을 선보일 예정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 이하 SeMA)과 협업하여 6월 5일(수)부터 8월 1일(목) 약 2개월에 걸쳐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스튜디오에 참여했던 한국인 작가 4명으로 구성된 전시회 ‘세계의 저편’을 문화원 1층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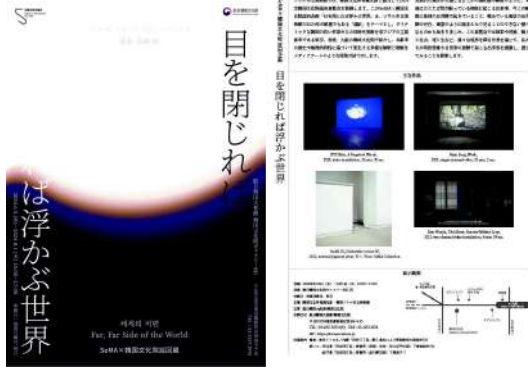
이번 ‘세계의 저편’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한국문화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시회로, SeMA의 2024년 기관 의제인 ‘연결’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역동적인 한국의 유망 작가 4명이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인 도쿄, 홍콩, 오사카에 순회하면서 각 도시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사진과 소리, 영상 등의 미디어 아트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본 전시회에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거친 4명의 대표적인 작가로 구성된다. 유비호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비춘다. 송세진은 사회와 관계 맺는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거대 담론과 개인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기슬기는 우리가 실상적으로 바라보는 풍경과 사물을 소재로 외부세계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한다. 김우진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사라져 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리서치에 기반한 작업으로 조명한다. 본 전시회에서는 기슬기, 김우진, 송세진, 유비호 작가의 사진, 소리, 조형 영상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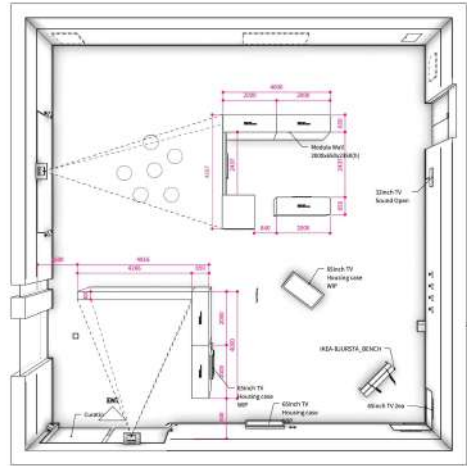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 작가들이 일본에서의 활동 발판이 되고, 한일 작가간의 교류도 활성화되길 바라며,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한국의 유망 작가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관련 이미지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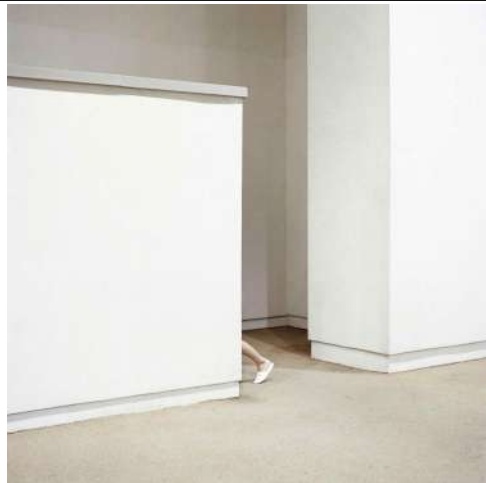
행사 포스터 및 전단지 디자인



공간 디자인(안)



출품 예정 작품 : 예언가의 말
유비호 작, 2018년, 비디오 설치, 13'30



출품 예정 작품 : Unfamiliar Corner_02
기술기 작, 2012년, Archival pigment print



출품 예정 작품 : Work
송세진 작, 2023년, 싱글채널 비디오, 22'5



출품 예정 작품 : The Ghost, Sea and Mobius Loop
김우진 작, 2022년, 투채널 비디오 설치, 8'59